

“신산업 육성해 동부권 산업구조 다각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순천시 상생토크’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산업 발전 방안을 지역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상생토크이자, 전남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한 일곱 번째 상생토크다.

순천 상생토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순천시 지역 기업인, 광주·전남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특별법 내용을 전남 동부권 산업과 연계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기간산업의 수명주기 도래에 따른 산업 체재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해 기존 석유화학·제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동부권 발전전략으로 ▲광주권-동부



광주시,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후 순천시 첫 상생토크 순천·여수·광양·산단, 인공지능 대전환(AI)으로 재도약 반도체·이차전지·항공우주 등 신산업 키워 경쟁력 확보

권 연계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 ▲AI·반도체 인재양성 사다리 확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 ▲중소도시형 통합돌봄 특구 지

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

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침체된 동부권 산업의 재도약 방안과 통합 이후 재정·행정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동부권 산업구조 전환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면 사람이 모여드는 부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며 ‘인 광주’, ‘인 전남’의 시대를 열 것이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위생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율을 높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안전지수 감염병 분야 개인위생 실천 지표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질병관리청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손 씻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

전남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 강화로 감염병 선제 차단

12월까지 도민 홍보·교육... 시군 협업 강화·예산 편성도

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손 씻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손 씻기 실천 목표 설정 및 중점관리군 집중 개선 ▲경로당·학교·어린이집·다중이용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 점검 ▲감염병 유행 시기 집중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이다.

22개 시군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군별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손 씻기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시군 자체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 개인위생 실천 항목을 반영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위생 교육·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했다. 손 씻기 교육 스티커 및 홍보 물품 제작·배포를 통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위생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손 씻기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는 만큼, 생활 속 개인위생 실천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동네 골목맛집 100’ 발굴에 나선다. 서구는 지역 곳곳에 숨은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대표 맛집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84개소가 골목맛집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는 서구 관내 소규모 음식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온라인 주민 투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위생·맛·서비스·향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6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구 내에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연면적 1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제과점이

서구, ‘우리동네 골목맛집’ 참여 업소 모집

위생·경영 컨설팅 등 맞춤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단란·유형주점은 제외되며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된 업소에는 ▲공식 지정패 교부 ▲전문가 경영 컨설팅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 지원을 위한 주방 위생 컨설팅을 강화하고 위생 분야 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서구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구보건소 보건위생과(062-360-7675)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영 보건위생과장은 “골목맛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춰 자생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역량 있는 영업주들의 많

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골목맛집 사업과 연계한 ‘방문 인증 헬린지’를 통해 서구청 직원과 워크온 앱 사용자, 주민 등 17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골목상권 방문을 유도했다. 또한 골목맛집 참여 업소들의 상생 실천으로 매출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에 58개소가 신규 등록되는 등 지역 나눔 문화 확산으로도 이어졌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남구, ‘제2기 우리동네 맥가이버’ 모여라

오는 12일까지 봉사활동 참가 희망자 모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봉사 인력 확대를 위해 제2기 우리동네 맥가이버 봉사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5일 “관내 주민의 일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동네마다 손재주가 뛰어난 기술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우리동네 맥가이버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맥가이버는 취약계층 이웃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봉사단으로, 봉사단원들은 다방면의 기술을 습득하는 양성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제2기 봉사단원 모집 규모는 35명 이내이다.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와 책임감이 강하거나, 교육 이수 후 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기와 설비, 목공, 도배 등 생활기술 관련 경험 보유자는 우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접

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b397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서류 심사를 통해 3월 중순께 우리동네 맥가이버 봉사단원으로 활동할 주민들을 선발할 예정이며, 4월부터 본격적인 양성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양성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월 2회씩 진행하며, 분기에 한 번씩 현장실습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이 기간에 각종 공구 사용법과 방충망 시공, 콘센트와 LED 형광등 교체, 안전손잡이 및 가스 타이머 설치, 문 자물쇠 수리 방법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배운 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면 뿌듯한 보람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면서 “무엇이든 적절 해결하는 우리동네 맥가이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1기 참가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양성 교육을 수료한 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체비를 하고 있다. /임재일 기자

부끄머니 80억, 발행 이틀 만에 ‘전액 소진’

올해도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중 판매 속도 가장 빨라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의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발행 이틀 만에 모두 팔리면서 올해도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중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북구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일 발급을 시작한 80억 규모의 부끄머니가 이날 오전 10시경 전액 소진됐다. 완판까지 6일이 걸렸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4일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연속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보였다.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조기 소진은 부끄머니 활성화를 위한 북구의 다양한 노력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북구는 올해 15% 선행인 혜택을 제공했다. 부끄머니와 비슷한 성격의 은누리상품권(할인율 7%)·광주상생카드(할인율 10%)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점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끄머니 구매처를 기존 북구 내 광주은행(18개소)에서 광주 전역(67개소)으로 넓혀 카드 발급을 한층 수월하게 한

것도 소진 속도에 불을 붙인 것으로 평가된다.

음식점·마트·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2만 개가 넘는 가맹점은 평소 생활반경 내 어디서든지 부끄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를 나타내는 듯 3일 북구청 광장은 이른 시각부터 부끄머니 발급을 위한 장사진이 펼쳐졌으며 대기자에게 배부하는 번호표까지 조기 소진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끄머니는 발행 첫날부터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체 발급액의 78.4%에 해당하는 62억 원이 팔렸고 이튿날 완판됐다.

한편, 북구는 이번엔 발급된 부끄머니 80억 원이 골목상권으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착한가게업소-부끄머니 사용 인증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착한가게업소에서 부끄머니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부끄머니를 지급한다. /송현근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